

21세기 일본유신

— 대학의 변혁과 책문화 서바이벌

백원근

대학가 빅뱅, 생존경쟁 돌입

일본 대학들이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적자생존기를 맞고 있다. 학생수 감소, 학력 저하, 취업난 등 우리가 직면한 현실과 엇비슷한 상황론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한 4년제 사립대학이 140개 안팎이나 되고, 재정 적자에 허덕이던 8개 대학에는 작년에 신입생 모집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사립대학의 위기가 교육시장의 원리에 의해 일찍부터 예고된 것이었다면, 국립대학의 위기는 1999년 이래 정부와 여론으로 강제된 '경쟁력의 명령'이었다. 고이즈미 총리의 '성역없는 개혁' 정책에 의해 도쿄대학을 필두로 전국 89개 국립대학이 올해 4월 신학기를 기해 독립법인으로 전환되었다. 도쿄대학 설립 130년만의 대변신이다. 지난 4월 도쿄대학 총장이 교직원과 학생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비장하게 거듭나기 노력을 촉구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당초 이 같은 대학개혁 구상의 바탕에는 방대한 교육예산 삭감과 공무원 감축, 그리고 국제 경쟁력이 있는 대학을 육성하자는 일본 정부의 '경쟁 원리주의'가 자리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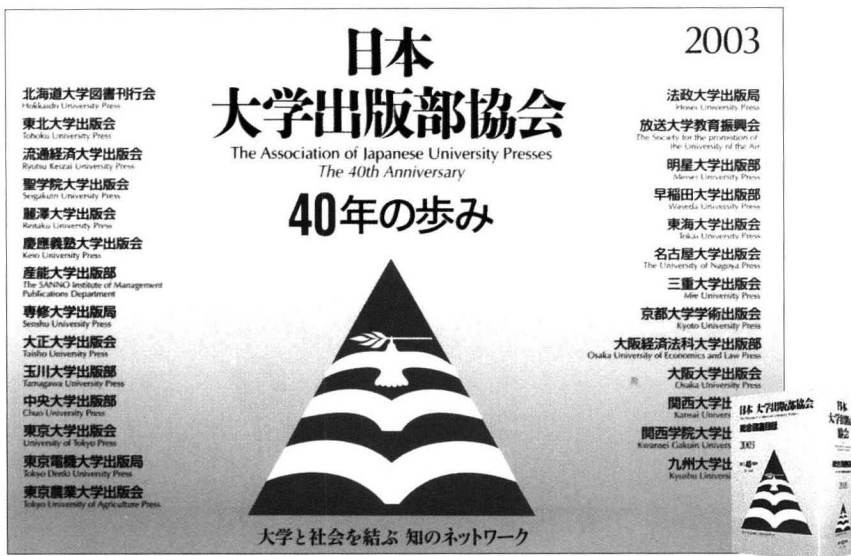
국립대학의 독립법인화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정부 교부금을 실적과 경쟁력

에 따라 지원받되, 예산·인사·조직·교육연구 등 경영 전반을 정부 간섭 없이 완전 자율로 한다는 점이다. 학생 정원이나 학과의 신설·폐지, 부속기관 독립 등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한 학교운영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소관부처인 문부과학성의 '국립대학법인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정부 교부금액이 달라지므로 생산성 위주의 대학경영이 필수적이다. 우수 연구 거점을 중점 육성한다는 정부 전략에 반기를 내건 곳은 없다. 이제 총·학장은 대학의 CEO로서 자체 수익사업을 펼치는 등 활발한 경영 활동에 나서야 할 형편이다. 국립대의 '철밥통 그릇' 교수들은 국가공무원 신분을 잃은 대신 겸업·겸직이 자유로워졌다.

그동안 무풍지대로 남아 있던 대학사회에 무한 경쟁 체제가 도래하면서 책과 매개된 대학 내 조직들, 즉 대학출판부, 대학도서관, 심지어는 구내서점까지 서바이벌 노선에 뛰어들고 있다.

"대학과 사회 잇는 지식 네트워크" 대학출판부

이런 상황에서 상당수 대학들은 대학출판부를 신설하거나 활성화시키는 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 만엔쵸 초상화의 주인공이자 메이지유신의 주역 후쿠자와 유키치가 설립한 게이오대학(1869년)에서 시작된 일본의 근대 대학출판은 사립대학이 선발주자였지만 제2차대전 이후 국립대학들이 출판부



대학출판부 종합도서목록. 그 옆은 일본대학출판부협회가 작년에 발간한 40년사. 회원사들의 역사와 출판 활동을 소개한 다음 협회 연표와 자료를 실었다.

를 설립하면서 성장해 왔다.

오늘날까지 발행된 대학출판물은 누계 2만 5천종에 육박하는데 학술서(50퍼센트), 대학교재(20퍼센트), 교양서(30퍼센트)로 대별된다. 발행부수는 학술서가 1,000부 내외, 교과서가 3,000부 내외, 일반인을 위한 교양서가 4,000부 내외로 알려진다. 출판 전체에서 차지하는 신간 점유율은 1퍼센트 정도이지만, 시장 점유율은 그 이하다. 그러나 그 중요성을 일본 지식인들은 불가결한 가치로 높게 평가한다. 대학의 연구성과를 교육과 사회 발전을 위해 퍼내는 소수부수 출판이기에 시장성보다는 학술적 가치를 우선시한다는 점은 대학출판의 특성이자 숙명이다. 하지만 이제 상업적 고민을 도외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일본 대학출판부의 특징은 일반 독자를 위한 다양한 공개강좌 시리즈, 학술전문잡지 발행, 지방대학의 향토성 짙은 목록, 특색 있는 출판성향 등으로 요약된다. 예를 들어 도카이대학의 자연과학 원색도감이나 해양 관련서, 호세이대학의 해외 주요 학술서 번역 시리즈〈우니베르시타스〉(약 700종), 다마가와대학의〈어린이 백과〉(100권) 등 교육 관련서, 산노대학의 비즈니스서, 쥬오대학의 법률서, 도쿄전기대학의 전기공학 및 이공학서 등 대학출판부별로 개성과 전문성이 어우러진 출판활동은 성가가 높다.

각 대학 출판부 활동을 연결하고 묶어내는 중심 조직은 일본대학출판부협회다. 1963년에 10개 대학이 가입해 '대학출판부협회'로 출범했고, 1992년 협회 명칭을 바꾸면서 사무, 편집, 영업, 국제 등 4개 분과를 두었다. 도쿄 중심의 지역성 극복을 위해 간사이(關西)지부를 별도 설치했다. 현재 전국 29개 대학(지역연합을 합하면 73개 대학)의 출판부로 구성돼 있다. 대학별 조직 형태는 재단법인과 학교법인은 물론 주식회사(6개)까지 다양하다. 협회는 다양한 공동 마케팅 방식을 통해 출판시장에 대응하고 있다. 회원사들의 신간을 모두 수록한〈신간도서목록〉과 총목록인〈일본대학출판부협회 종합도서목록〉을 매년 제작해 배포한다. 금년판에는 작년에 회원사들이 발행한 신간 812종이 분야별로 수록되어 있다. 기타

기관지로〈신간속보〉(월간) 및〈대학출판〉(계간)을 종이판과 인터넷판으로 펴낸다. 인터넷 시대에 맞춰 웹 홈페이지(www.ajup-net.com)에서는 회원사가 발행한 신간 저자와의 인터뷰를 링크시켜 동화상으로 내보낸다. 창립 40주년 기획 이벤트로 작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서점에서 대학출판물 전시회를 개최했으며, 일본 국내는 물론 북경, 대만,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도 참가한다.

소수에게만 읽히는 학술도서를 시장에만 의탁하는 일은 무모하다. 때문에 대학출판에서 학술출판 지원금(助成) 제도는 오아시스와 같다. 일본학술진흥회, 조성재단센터 같은 공익기관은 물론, 일본생명 등 다수 기업들의 학술출판 지원금을 유치하는 일에 협회는 앞장선다. 대학출판 종사자들의 재교육을 위해 강연회나 세미나 등의 연수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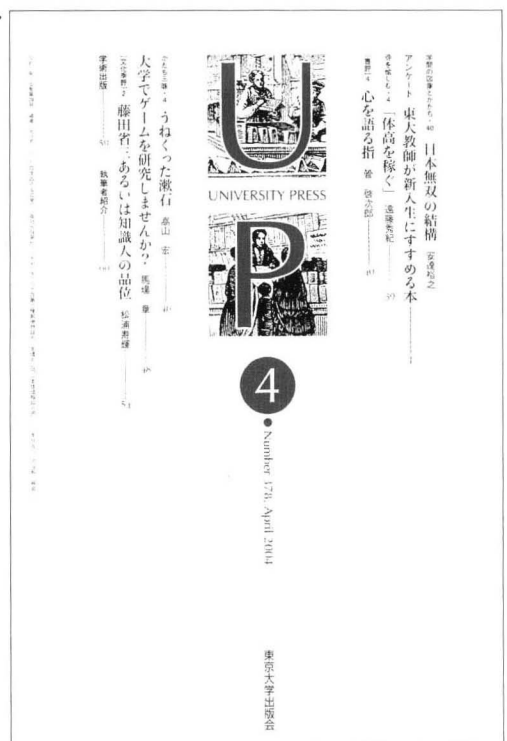
협회의 간사장(대표)이자 동경대학출판회 전무이사인 와타나베 이사오(渡邊 勳)는 금년 초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립대학 법인화를 계기로 출판부를 신규 설립하는 대학들이 줄을 잇고 있다. 대체로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는 곳들이 많은데, 무엇보다도 출판부의 위상에 대한 대학 차원의 철저한 논의를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라며 "향후 대학출판부는 수익을 중시하는 독립형·기업형 출판부, 대학과의 연관성을 중시하는 대학 밀착형·비채산형 출판부로 양극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모체인

· 도쿄대학출판회가 발행하는 월간지 〈UP(University Press)〉. 지난 4월호에는 신학기를 맞아 신입생들에게 권하는 교수들의 추천도서 양케이트를 특집으로 다뤘다.

.. 오미우리신문 인터넷판의 대학출판부 특집 신간 소개 코너

... 인터넷 동영상으로 저자의 책 소개를 보여주는 일본대학출판부 협회의 신간 소개 사이트.

... 대학도서관의 외부 이용자 추이 그래프. 24시간 개방 등으로 연간 열람자가 100만명을 돌파해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대학의 위상을 실감케 한다.



대학과의 연계나 학술출판의 원형질을 중시하면서도 독자적 행보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찾기에 나선 일본 대학출판부의 모습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대학 개혁의 조류 속에서 활발한 출판활동으로 일반 출판사들을 추동하는 국내 대학출판부가 이미 여러 곳 부상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이 주민도서관으로, 대학 구내서점은 '독서 마라톤' 전개

일본 대학도서관의 98퍼센트가 대학 외부 이용자에게 완전 개방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4월 27일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2002년 말 기준 수치이다. 대학도서관을 이용하는 외부 이용자수도 작년에 연간 101만 명을 돌파해 10년 전에 비해 4.2배나 늘었다. 지역사회에 밀착된 위상이 부각된다. 전국 699개 국공립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경우 100퍼센트가 외부 이용자에게 개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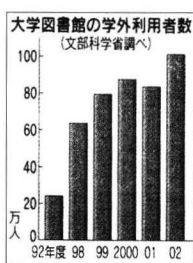
평일 저녁시간까지 외부인에게 개관하는 대학은 81.3퍼센트에 달했고, 휴일에 개관하는 곳도 38.5퍼센트나 되었다. 국립대학 도서관 가운데 36개관에서는 '24시간 영업'을 실시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자동 출입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직원이 상주할 필요 없이 셀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가운데 유별난 활동으로 주목을 받는 곳들이 여럿 있다. 예를 들어 야마나시(山梨)대학도서관은 관내에 '어린이 도서관'을 설치해 지역 아동들에게 개방한다. 이동서가 충실함은 물론이고,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그림책 읽어주기, 구연동화, 종이연극, 인형극 등의 이벤트를 벌임으로써 공공도서관의 서비스에 뒤지지 않는 대민 봉사정신을 발휘한다. 또 요코하마(横浜)대학도서관은 카페, 휴게실, 공연장 등을 설치해 주민들의 교류의 장으로 활용된다. 이 정도면 더 이상 고답적인 대학도서관의 이미지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한편, 대학 구내서점이라고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와세다대학에서는 금년 1월부터 '독서 마라톤'을 구내서점에서 실시 중이다. 학생들이 읽은 일반도서

후감을 100자 정도로 요약해 명함 크기의 독서카드에 써넣어 책 표지에 부착하는 방식이다. '소비자 추천'이 위력을 발휘하는 시대이므로, 그 감상문에 흥미를 갖게 된 학생들이 사서 읽는 비율이 매우 높으며 구내서점 담당자들은 반색한다. 학생들이 독후감을 써낼 때마다 1개씩 확인도장을 찍어 10개를 모으면 대학생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에서 이용할 수 있는 500엔짜리 할인 쿠폰을 준다. 학생들 역시 신선하고 재미있으며 호평이다. 일반 서점들에서 POP 홍보문으로 구간이 많이 팔리는 사례를 응용한 방식이다.

도쿄대학이 2000년에 2,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실태 조사 결과, 7개월간 만화는 평균 36권 읽었지만 일반교양서는 12권에 머물렀다. 또 2003년 말 전국생협이 40개 대학에서 조사한 월평균 도서구입비는 2,560엔으로, 1980년 조사시의 5,350엔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그래서 작년 생협의 도서 담당자들이 모인 연수회에서 짜낸 아이디어가 바로 '독서 마라톤'이다.

이처럼 급변하는 일본의 대학가에서 책문화를 책임지는 이들의 '쿠후'(工夫)하는 모습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일본 한자어의 공부(공부)는 학습이 아닌 공리를 뜻하는데, 창의적인 공리가 환경 탓에 앞서야 함을 그들은 보여준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창의적인 노력이 출판문화의 비전을 만들어낸다. **한글**



이 글을 쓴 백원근은

현재 (재)한국출판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일본출판학회 정회원으로 일본 매스컴업계 주간지(文化通信)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2002년 일본 문화청에서 주최한 <동아시아 출판문화 심포지엄>에 한국 대표로 참여했으며 펴낸 책으로는 번역서 《출판광고》 등이 있다.